

정책 핫이슈

Contents

- 정책 핫이슈 1
"4대강이 살아야 지역경제도 산다"
- 정책 포커스 2
지역발전위원회, 국제컨퍼런스 개최
'08년 군특사업 평가결과
- 위원장 메시지 3
"발전은 성장+균형입니다"
- 지역 안테나 4
논산, "명품딸기 덕에 불황 몰라유"<

다음은 이날 한승수 국무총리의 사회로 80분간 진행된 1부와 2부 종합토론의 주요발언 요지다.

“..좋은 환경은 국민의 심성도 바꿉니다. 청계천에는 싸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발을 밟아도, 부딪혀도 서로 웃고 화해합니다. 청계천이 1천만 서울시민의 마음을 바꾸었듯이, 4대강도 5천만 우리 국민들의 마음과 정서를 바꿀 것입니다”

- 이명박 대통령

1부 토론: 전체 추진방향

· 4대강 살리기는 선제적인 국가전략이다. 조만간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브랜드가 될 것이며, 세계 녹색성장의 선도모델이 될 것이다. 4대강을 세계 최고의 강으로 만들기 위한 利水, 治水, 活水는 물론 향후 경제적 활용까지 고려하자. 이승환(홈플러스 그룹 회장)

</

“발전은 성장+균형입니다”

-위원회 명칭변경에 따른 우리의 각오-

지난 4월22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으로 위원회 명칭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발전위원회(지역위)로 바뀌었습니다. 기관명칭에서 균형이 빠지자, 균형발전의 후퇴로 오해하는 시각도 많습니다. 이런 오해는 균형이란 표현이 갖는 상징적 기대가 너무 큰 탓입니다. 불균형보다 균형이 좋다는 것은 보편적 가치이지만, 균형만이 지역발전의 궁극목표는 아닙니다. 균형도 지역발전의 목표중 하나이지 전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장 없는 균형은 나누어 먹기 일뿐입니다. 성장 없는 균형은 하향적 평준화입니다. 균형 없는 성장 역시 모든 불평등의 원인입니다. 발전은 성장과 균형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지역발전도 지역의 성장과 지역 간 균형을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균형이 주어진 ‘파이’를 똑같이 나누는 것이라면, 발전은 ‘파이’를 키워 돌아가

충청권 논산, “명품딸기 덕에 불황 몰라유”

논산딸기가 화려한 부활에 성공했다. 수입개방으로 벼랑 끝에 몰렸던 논산딸기는 민관이 머리를 맞댄지 7년 만에 당도 높은 새 품종을 개발, 꺾였던 일본수출 길을 열고, 지난해 매출도 1,000억 원까지 끌어올렸다. 최근 수출물량만 76만 7,000달러(101톤)에 달한다. 올해는 50톤 이상이 일본·대만·싱가폴·러시아 등으로 팔린다. 논산딸기 축제에는 지난해 100만 명이 몰렸고, 딸기수확 체험에도 관광객 10만 명이 다녀갔다. 한편, 농산물 수출로 부자 된 시골마을은 논산뿐만이 아니다. 군산 쌀은 지난 2007년 이후 미국·러시아·영국·뉴질랜드·두바이 등 7개국에 300톤이 팔렸고, 천안 배도 지난해 1,600만 달러(7,192톤)를 수출한 데 이어, 진주도 2,455만 달러어치의 순수 농산물을 해외에 팔았다.

</

대경권 대구·경북 지역민, 경제심리 먹구름 걷혀

대구·경북지역의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최근 발표한 ‘4월 지역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소비자심리지수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같은 날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실시한 ‘5월 중소기업경기전망’도 3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 주식 등 자산 가격상승, 금융위기 완화로 경기선행지표가 개선되고 대경권 경제가 본격적인 상승세를 탈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으로 경기하강에 대한 우려가 줄면서 가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 지난 3월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인 지원 조례안 발의, 전국 ‘첫 추진’

경상북도 도의회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귀농인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

기획재정부 4월말까지 110.7조원, 계획대비 111.5% 재정집행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을 위해 4월말까지 110조 7,000억원의 재정이 조기 집행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4월말 현재 집행관리 대상 257.7조원중 110.7조원을 집행하여 111.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연간 진도률은 43.0%로 4월말 계획(38.5%)보다 4.5%p 앞서가고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4대 중점관리분야도 36.2조원을 집행하여 124.8%의 집행율을 보였다. 기재부는 또 추경예산의 내실있는 집행을 위해 추경 총지출 17.2조원 중, 주요 사업비 15.1조원(예산 10.5조원, 기금 4.6조원)에 대해 본예산과 별도로 집행관리한다. '09년 본예산의 조기집행에 따른 하반기 재정여력 보완을 위해 분기별 균등집행원칙하에 집행계획

국토해양부 청주공항 운영권 민간매각

청주국제공항 운영권이 민간으로 매각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한국공항공사가 독점 운영하던 14개 지방공항 중 청주국제공항을 민간 매각대상으로 선정했다. 14개 지방공항 중 1위로 선정된 청주국제공항은 현재 여객과 화물 처리물량이 저조한 적자공항이지만, 꾸준한 항공수요 증가추세로 성장가능성이 높고, 과도한 인건비 비중 등 비효율성이 커 민간운영을 통한 효율성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됐다. 국토부는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매각 추진전략 및 공공성 확보방안 검토 등 전문 컨설팅을 7월말까지 실시하고, 매각공고와 우선협상자 선정 등 내년 초까지 인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청주공항

해외정책 사례연구 - 일본

일본,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총괄조직 신설·단계적 수립·행정개편 추진-

일본은 1962년부터 2005년까지 도시과밀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 '전국종합개발계획'을 추진했다. 이 계획은 균형발전을 목표로 공장·교육기관 등을 지방에 분산, 지역의 중추·핵심도시 성장에 기여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세계화·분권화 흐름에 역행한데다, 인구감소 등 여건 변화도 반영하지 못했다. 특히 지역사회의 '安全·安心·安定 실현'을 목표로 하는 성숙사회에 걸맞는 계획체계나 목표가 없었던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일본 지역정책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5년부터다. 정책기조를 ▶국